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Wan Hai Lines splashes out \$550m on neo-panamax boxship quintet

현대중공업이 Wan Hai로부터 13,200TEU급 컨테이너선 5척을 수주했다고 보도됨. 인도기한은 2023년 1분기까지라고 보도됨. Wan Hai는 재래식연료추진 시스템을 선택했고, 척 당 선가는 1.1억달러를 소폭 상회한다고 알려짐. Wan Hai는 선대확충을 위한 예산이 남은 상태며 타 조선사에도 발주 문의 중이라고 보도됨. (TradeWinds)

JP Morgan ponders neo-panamax boxship order at Hyundai Heavy Industries

현대중공업이 JP Morgan과 15,000TEU급 컨테이너선 2+2척에 대한 건조의향서(LOI)를 체결했다고 보도됨. JP Morgan은 재래식 연료 추진 시스템을 선택했다고 알려짐. 척 당 선가는 공개되지 않음. (TradeWinds)

Adnoc Logistics & Services takes LNG-fuelling plunge on VLCCs

아부다비 소재의 Adnoc L&S(Logistics & Services)가 대우조선해양에 발주한 VLCC 3척의 엔진시스템을 LNG Dual-fuelled 시스템으로 바꾼다고 보도됨. Adnoc는 지난 12월 VLCC 3+3척을 발주한 바 있으며, 당시 계약한 엔진시스템 변경 옵션을 행사했다고 보도됨. (TradeWinds)

Shipyard berths vanish for 2023 newbuilding deliveries

한국과 중국 대형 조선업체들의 2023년 인도분 슬롯이 동이 났다고 보도됨. 최근의 컨테이너선 및 벌크선 신조 발주 증가 영향이라고 보도됨. 중국 조선소의 경우 세계 최대 규모 광산기업들이 Capesize와 NewCastlemax급 벌크선 슬롯을 거의 모두 삼켜버리다시피 한 상황이라고 보도됨. (TradeWinds)

MSC's \$3bn spree lines up 27 slots at Chinese yards

MSC(Mediterranean Shipping Co)가 중국 Dalian Shipping Industry와 Guangzhou Shipyard International과 15,500TEU급 컨테이너선 5+5척씩, 총 20척에 대한 건조의향서(LOI)를 체결했다고 보도됨. MSC는 재래식 연료 추진 시스템과 스크러버를 채택할 예정이라고 알려짐. 척 당 선가는 1.2억달러로 추정된다고 보도됨. (TradeWinds)

현대중그룹, 2030년까지 육·해상 수소 밸류체인 구축

현대중공업그룹이 육·해상을 아우르는 수소 밸류 체인 비전을 발표했다고 보도됨. 계열사에 흩어졌던 수소 산업 역량을 한데 끌어모아 '친환경 조선해양·에너지 기업'으로 전환을 본격화했다고 보도됨. (서울경제)